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 하 (문창수·안광현 옮김, 베드로서원)

45장 비판하지 말라

『산상설교』 하권 제45장, 인쇄 199~213쪽 · 설교 본문 마태복음 7:1-2

> ❓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럼 크리스천은 누가 옳고 그른지 아예 따지면 안 되는 걸까?**

🧭 흐름 한눈에

로이드 존스는 마태복음 7장이 따로 떨어진 격언 모음이 아니라고 본다. 산상설교 전체는 하나님 앞에서, 최후 심판을 의식하며 사는 삶의 연속이고, 7장은 그 연장선에 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를 사전 뜻으로 풀면 안 되고 두 극단의 오해를 함께 피해야 한다. 첫째 극단은 어떤 판단도 하지 말고 연합을 위해 무엇이든 받아들이자는 태도다. 그는 바로 뒤의 문맥, 국가와 교회의 권징, 교리 분별에 관한 성경 구절로 이 태도를 반박한다. 다른 극단은 주님이 실제로 금하신 것, 곧 남을 정죄하는 바리새적 '비판의 영'이다. 그는 이 영의 뿌리와 증상을 하나하나 진단한 뒤,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심판을 통과한 사람으로 살라는 복음의 권면으로 설교를 맺는다.

📜 절별 정리

📜 1. 7장을 읽는 자리: 심판 앞에서 사는 순례자

로이드 존스는 7장을 격언 모음으로 보는 견해가 아주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산상설교 전체의 흐름부터 다시 짚는다. 5장은 그리스도인의 성품,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사는 기능, 바리새인과 대조되는 율법 해석을 다룬다. 6장은 구제·기도·금식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리스도인은 삶을 순례로 보고, 최후 심판과 결산을 늘 의식하며 산다는 점에서 자연인(이 세상이 전부인 비그리스도인)과 다르다. 그는 산상설교가 쉽다는 말에 반대한다. 우리 힘에 맡겨지면 가장 실천 불가능한 가르침이고, 우리를 벌거벗기며 교리로 이끄는 신약 교리 전체의 서론이라는 것이다.

1. 7장은 격언 모음이 아니다
2. 남과의 관계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다
3. 그리스도인은 늘 최후 결산을 의식한다
4. 이 세상은 지나가는 예비학교다
5. 산상설교는 가장 실천 불가능한 가르침이다

> **마태복음 7:1-2**
> 비판 금지 선언과 그 이유를 제시하는 설교 본문
>
> 1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2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 **마태복음 6:1**
>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6장의 원리(설교에서 요약된 6장 흐름)
>
>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 2. 쉬운 말이 아니다: 두 극단과 시대의 분위기

“비판하지 말라”는 '비판하다'라는 낱말이 여러 뜻을 가지므로 사전으로 풀 수 없다. 로이드 존스는 이 말씀이 두 방향의 극단에서 오해받는다고 경고한다. 그는 자기 시대에 이 구절의 정확한 해석이 특히 중요하다고 본다. 사상과 신학과 교리를 싫어하고, 안일과 타협을 좋아하며, “조용히 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하기 때문이다. 교회사에서는 원칙을 지키다 희생한 사람들이

관계에서 다른 이들의 굴욕과 배신을 대가로 해서라도 평화를 원했던 풍조를 예로 든다. 교회 안에서는 공산주의의 위협 앞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쓰면 누구든 받아들이자는 연합론이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1. '비판'은 사전으로 풀 수 없는 말이다
2. 진리는 늘 두 극단에서 오해받는다
3. 당시는 교리를 혐오하는 타협의 시대였다
4. 원칙주의자는 까다로운 사람 취급을 받았다
5. 공산주의 앞에서 무조건 연합론이 나왔다

> **마태복음 7:1**
>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모든 판단 금지'로 오해되는 말씀
>
>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기독교 생활은 항상 균형 잡힌 생활이어야 합니다."

📜 3. 판단 자체를 금하신 것은 아니다: 문맥·국가·교회·교리

로이드 존스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해석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한다. 근거는 성경 자체다. 먼저 바로 뒤 6절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명령하는데, 누가 '개'인지 판단하지 않고는 지킬 수 없다. 15~16절은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고 열매로 알라고 한다. 거짓 선지자는 상냥하고 기독교 용어를 쓰므로 표준과 분별력이 없으면 가려낼 수 없다. 성경은 국가 영역에서도 재판장과 치안판사가 하나님께 임명받아 판결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것은 악을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므로 경찰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교회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집전되며, 권징이 행사되는 곳"으로 정의했다. 그런데 지금은 출교나 성찬 정지를 들어 본 지 오래일 만큼 권징이 사라졌다. 교리 문제에서도 바울, 요한, 주님 자신이 판단을 명하셨다.

2. 국가 재판은 악을 막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3. 권징은 말씀·성례와 함께 교회의 표지다
4. 이단과 거짓 교사는 가려내고 멀리해야 한다
5. '사랑의 사도' 요한도 단호했다

마태복음 7:6

바로 뒤의 명령부터 판단과 분별을 요구한다

>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마태복음 7:15-16

거짓 선지자를 열매로 알아보려면 표준이 필요하다

> 15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16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갈라디아서 1:8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한 분명한 판단

>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디모데후서 2:17-18

부활을 부인한 후메내오와 빌레도를 실명으로 지적

> 17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내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18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디도서 3:10

이단에 속한 사람은 훈계한 뒤 멀리하라

요한이서 1:10-11

참 교리 없는 자를 집에 들이지도 인사하지도 말라

10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11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요한복음 7:24

외모로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는 주님의 명령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15-17

형제의 죄를 다루는 단계적 교회 권징

15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16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17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 4. 금하신 것은 정죄다: 바리새인의 영

주님이 관심을 두신 것은 판단 자체가 아니라 '정죄'다. 다만 정죄를 피하려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 반대 극단으로 가면 다시 거짓된 자리에 서게 된다. 그리스도인은 양쪽 오류를 피해 진리의 중심을 걸어야 한다. 로이드 존스는 정죄의 가장 좋은 실례로 바리새인을 든다. 산상설교 내내 주님이 염두에 두신 사람들이다. 그들은 율법을 잘못 해석했고, 구제·기도·금식을 과시했으며, 세상을 돈으로만 보았다. 성전에서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고 기도한 바리새인처럼, 그들의 큰 잘못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태도였다. 그는 이 태도가 바리새인에게만 있지 않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괴롭혀 왔다고 말한다.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처럼 이 구절은 우리 모두를 찌르는 말씀이다. 고통스럽지만,

2. 정죄를 피하려다 무분별로 가도 오류다
3. 바리새인이 정죄의 대표 사례다
4. 이 영은 오늘 교회도 괴롭힌다
5. 아픈 상처일수록 엄밀히 검진해야 낫는다

> **누가복음 18:9-14**
> 남을 멸시하며 자기를 의롭게 여긴 바리새인의 기도
>
> 9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 말씀하시되 10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 하나는 세리라 11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 드리나이다 하고 13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 **누가복음 16:15**
>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
>
>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 **요한복음 8:7**
> 정죄하려는 모두에게 자기 죄를 보게 하시는 말씀
>
>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 5. 비판의 영 진단①: 뿌리와 성향

주님이 경고하시는 위험은 행동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 '영'이다. 그 정체는 스스로 의롭다 하는 영이고, 뒤에는 늘 자아가 있다. 이 영은 남은 그르고 자기는 옳다고 여기며, 쉽게 비난으로 번지고, 남을 멸시한다. 로이드 존스는 비평과 혹평을 구별한다. 참된 비평은 건설적이고 일종의 감상이다. 혹평은 비평 자체를 즐기며, 결점을 기대하고 찾으면서 다가간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랑과 반대로, 이 영은 가장 나쁜 것을 바라고 흠이 없으면 거의 낙심한다. 그래서 하찮은 일을 중대한 문제로 키운다. 로마서 14장이 좋은 주석이다. 음식이나 날 문제로 서로 판단하던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중요한 믿음의 문제와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구별해야 한다. 남의 불행한 소식, 특히 시기하던 사람의 실수 소식에 쾌감이 든다면 바로 이 영이다.

1. 뿌리는 자기 의, 그 뒤에는 자아가 있다
2. 비평은 건설적이고 혹평은 결점을 즐긴다
3.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이 영은 최악을 바란다
4. 하찮은 일을 중대사로 만든다
5. 남의 실수 소식에 쾌감이 들면 경고등이다

> **고린도전서 13:7**
>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랑, 그 반대가 비판의 영이다
>
>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 **로마서 14:5**
> 날 문제는 각자 마음으로 확정할 일이다
>
>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 **로마서 14:17**
>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10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비평과 악평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 6. 비판의 영 진단②: 드러나는 모습과 최종 정죄

로이드 존스는 이 영이 활동하는 모습을 차례로 짚는다.

-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과 일에 의견을 내며 시간을 허비하고 악한 쾌감을 느낀다.
- 원칙이 서야 할 자리에 편견을 놓고, 그 편견을 원칙처럼 쓴다. 원칙에 따른 판단은 권징에 꼭 필요하지만 편견은 그렇지 않다.
- 원칙 대신 인신공격을 한다.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원칙을 지키는 사람을 '까다롭다'며 사람됨을 공격한다.
- 사실을 다 알기 전에 판단하고, 전말을 알아보려는 수고도 하지 않는다. 해명을 듣거나 참작할 사정을 찾으려 하지 않고 "더 설명할 필요 없다"고 말한다. 긍휼한 사람은 분별력을 쓰되 해명에 귀를 기울인다.
- 가장 두려운 모습은 사람의 행동·믿음·말이 아니라 사람 자체에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권세를 가로채는 일이다.

사마리아 마을이 주님 일행을 영접하지 않자 야고보와 요한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멸하자고 했다. 주님은 그들을 꾸짖으며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않고 구하러

1. 나와 무관한 일에도 판단을 내린다
2. 편견을 원칙인 척 내세운다
3. 원칙 대신 사람을 공격한다
4. 사실 확인과 해명 듣기를 거부한다
5. 사람 자체를 정죄하면 하나님 권한을 침범한다

> **누가복음 9:51-56**
> 사마리아인을 멸하려던 제자들을 주님이 꾸짖으심
>
> 51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 결심하시고 52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매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53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 하는지라 54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 원하시나이까 55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2) 56 함께 다른 마을로
> 가시니라

> **마태복음 7:2**
> 내가 쓴 잣대로 내가 판단받는다는 경고의 이유
>
>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물리치는 순간 … 하나님께만 속하는 … 권세를 찬탈하는 것이 됩니다.”

📜 7. 결론: 심판을 통과한 사람으로 살라

로이드 존스는 이 주제가 고통스럽다고 인정하면서, 우리가 남을 판단함으로써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한다. 우리 중 누구도 자기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한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철저히 버림받을 사람들이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길을 마련하셨다. 그러니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을 통과한 사람으로서 그분을 위해, 그분을 닮아 살라고 그는 간곡히 권한다. 정죄의 영을 고치는 약은 결국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1. 남을 판단하며 스스로를 정죄해 왔다
2.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한다
3. 하나님만이 재판장이시다
4.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남에게도 긍휼하다

> **로마서 5:8**
>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정죄의 해독제
>
>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 **마태복음 7:1**
> 은혜 받은 자에게 다시 주어지는 “비판하지 말라”
>
>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 오해와 반론

📖 용어

비판(판단)
이 장에서는 분별 자체가 아니라, 남을 깎아내리고 최종 정죄를 내리는 태도를 가리킨다.

교회가 죄를 범하고 돌이키지 않는 교인을 바로잡기 위해 훈계·성찬 정지·출교 등으로 다스리는 일이다.

출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교회 교제에서 공식적으로 내보내는 가장 무거운 권징이다.

이단
복음의 핵심 교리(예: 부활)를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가르침, 또는 그것을 퍼뜨리는 사람이다.

자기 의
내가 남보다 옳고 의롭다고 여기며 하나님 앞에 내 공로를 내세우는 마음이다.

비평과 혹평(악평)
비평은 장점까지 보며 세우려는 평가이고, 혹평은 결점 찾기를 즐기는 파괴적 평가다.

자연인
거듭나지 않아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 곧 비그리스도인이다.

바리새 영
겉으로 경건하지만 남을 멸시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 같은 내면의 태도다.

- **점검 질문** ⌄

💬 **청년의 삶으로** ⌄

✅ **이 장의 결론** ⌃

- “비판하지 말라”는 분별과 판단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다. 문맥, 권징, 교리 분별이 모두 판단을 요구한다.

- 그리스도인은 무분별한 타협과 정죄라는 두 극단을 피해 진리의 중심을 걷는 균형 잡힌 사람이다.
- 최종 심판은 하나님께만 속한다. 그분의 은혜로 심판을 통과한 사람답게 남에게도 긍휼히 산다.

빛다방 학습 노트 · 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베드로서원, 문창수·안광현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